

차분한 성시경, 반전의 김종국, 베테랑 전현무

성시경, '아카이브K'서 중간자 역할
김종국, '너목보' 등 시즌제만 3개
전현무, '슈퍼밴드2' 진행자도 검토



가수 성시경, 김종국, 방송인 전현무(왼쪽부터)가 음악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각각 SBS '전설의 무대-아카이브K',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을 통해 시청자와 만난다.

음악예능프로그램의 진행 강자로 꼽히는 '빅(Big)3'가 새롭게 떠올랐다.

가수 성시경과 김종국, 방송인 전현무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최근 쏟아지는 음악예능프로그램의 치열한 경쟁구도 아래서 각기 무대로 특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 음악 예능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를 휩쓸어온 방송인 김성주 등과 대비되는 매력으로 안방극장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오디션과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히 힘을 과시하는 이들은 풍부한 음악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자의 최대 미덕인 위기 대처 능력까지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성시경...나이·장르 불문 '폭 넓게'

3일 방송을 시작한 SBS '전설의 무대-아카이브K'의 진행자로 나서고 있다. 프로그램은 모두 121명의 가수가 54개의 무대를 꾸며 대중음악사를 되짚는다. 베테랑 이문세부터 '갯벌' 플립까지 다양한 연령대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발라드, 댄스 등 분야도 망라한다. 이들 가수들과 시청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게 진행자의 임무. 연출자 김영욱 책임프로듀서는 13일 "성시경은 40대에 접어든 나이, 확실한 음악적 커리어 등에 비해 대중음악사의

한 가운데에 있는 가수"라며 "그만큼 선배와 후배, 각종 분야를 모두 아우른다는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도 음악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프로그램에는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 준결승 무대를 앞둔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포커스'에도 출연 중이다.

●김종국...연예대상 역량을 그대로

29일 첫 방송하는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8로 시청자를 만난다. 2017년 시즌4에 합류한 이후 방송인 유세운, 가수 이특과 함께 벌써 다섯 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근육질의 외형을 동시에 갖춰 "반전이 핵심인 프로그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라고 자부한다. 유세운과 이특이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기는 역할이라면, 김종국은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다.

특히 시즌제 예능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높다. 앞서 엠넷 '더콜', '보이스코리아' 시리즈에 참여했다. 가요계와 방송가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 덕분이다. 특히 작년 SBS 연예대상을 거머쥐면서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전현무...'강자'의 자리, 올해도 잇는다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음악예능프로그램의 진행 강자 자리를 꿰찼다. 김성

주와 일찌감치 '쌍벽'을 이뤘을 정도다. 최근 마친 MBC '트로트의 민족'에 이어 26일 JTBC '팬텀싱어 올스타전'에도 진행자로 나서면서 명성을 이어간다. 상반기 방영을 준비하는 '슈퍼밴드2' 진행자 자리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특화된 진행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쌓은 다양한 무대 경력이 그 토대이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음악예능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사랑받는 요인이다. 윤상 등 함께 출연한 가수들도 "음악을 오롯이 느끼고 이를 시청자에게 전하는 능력이 탁월한 진행자"라고 찬사를 보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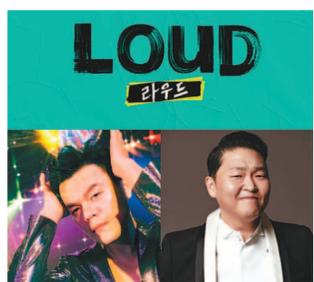
예정된 '오디션 예능' 5편인데...코로나가 변수

SBS '라우드' 서류접수기간 늘려
'걸스...' 등 해외지원자 유치 고민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인기가 올해 최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평풍'을 몰고 온 트로트프로그램으로 촉발된 오디션 포맷이 다시 유행하면서 대형기획사 합류, 해외합작 프로젝트, 1020세대 중심 등 다양한 방식의 무대가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BS '라우드', 엠넷 '걸스 플래닛999', JTBC '슈퍼밴드2',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등 상반기 기획 중인 작품만 5편이 넘는다. 하지만 실제 방송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제작진의 최대 고민거리는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이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1차 오디션을 치를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해외 참가자들의 참여 방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 커진다. 입국 뒤 2주의 자가격리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자칫 국내 참가자들보다 불리한 입장이라는 불만이 나올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보이그룹을 뽑는 '라우드'는 일단 1차 서류 접수 기간을



SBS '라우드'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이달 31일로 늘려 시간을 벌었다. 1차 오디션까지는 함께 받는 지원 영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외와 일본, 중국 등에서 지원자를 받는 '걸스플래닛999'는 서류 접수 기간

인 2월21일까지 오디션 형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지원자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있다. 방영 5~6개월 전부터 대학 실용음악과와 음악동아리, 음악학원, 음악단체 등 협조를 받아 광고하기도 한다.

연기자와 방송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도 예외가 아니다. 한 연기자 전문 기획사 관계자는 13일 "최근까지 3~4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노래를 잘하는 소속 연예인을 참여시켜달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이미 데뷔했어도 오디션을 통해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신인 연기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고백'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고백' 사회문제 고발 영화 잇따라 개봉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재판받기 시작한 가운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유해성분이 들어간 가슴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청 또는 파견 노동자들의 아픔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가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28일 개봉하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감독 이태겸·제작 흥시진, 아트웍)는 권고사직의 위기 앞에서 하청업체로 파견된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 산업재해와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 이들의 아픔도 담는다.

2월 관객을 만나는 '고백'(감독 서은영·제작 퍼레이드픽처스)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새롭게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다. 자신이 돌보던 학대 피해 아이가 유괴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에 맞닥뜨린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다.

현재 제작 중인 '균'(감독 조용선)은 800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풀어간다.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통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에 관해 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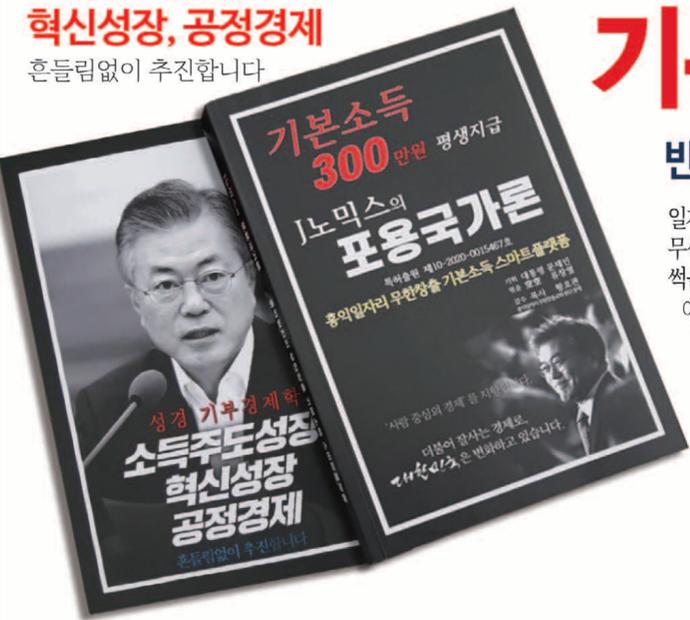
세 작품은 모두 스타급 연기자를 주연으로 내세운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에는 오정세·유다인이 주연으로 나서고, '고백'에선 박하선이 활약한다. '균'은 김상경과 이선빈을 주연 삼는다. 이들 연기자에게 향하는 관객의 시선을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쌓겠다는 제작진의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 등신 학부모야! /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 중요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중요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철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 부산 김정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수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만 010-4741-7008
- 창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시영원 010-8003-5323 / 최백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수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인 홍원표 010-6717-1779 / 서도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석 010-4707-2659
- 원주 010-5177-9479 ● 여주 삼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만도라야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웹메드 010-6806-1931 / 노수필 010-5153-5983 ● 평강 교명철 010-5463-6952 ● 중국 충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학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ubuntu 1644-6733